

2026. 3. 8

제117권 10호

**주일1부(묵상)예배**

오전 7시30분	인도:김기중목사
예배의부름	인도자
송영	찬양대
찬송 *서서	다함께
성시묵상	다함께
고백의기도	다함께
사죄의선언	인도자
신앙고백	다함께
찬송 *앉아서	다함께
기도	서일교집사
찬송 묵상	(예수 나를 위하여, 권용일장로) 다함께
봉헌 송 *서서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다함께
봉헌 기도	담임목사
교회소식 *앉아서	담임목사
찬양	우리과 함께 하시는 주 살롬찬양대
찬송	637장 다함께
성경봉독	마태복음20:29~34(신약P.33) 담임목사
말씀선포	【여리고 길가의 소리】 담임목사
말씀묵상	다함께
성찬예식	다함께
성도의교제 *서서	55장 다함께
축도	송영 담임목사

**오늘의 말씀 / 김승학 목사**

마태복음 20:29~34 / 여리고 길가의 소리

사순절 셋째 주일  
남선교회주일  
성찬주일

**주일2부(전통)예배 / 오전 9시**

인도:권훈목사

찬송	21, 337, 515, 55장	다함께
교독	127, 사순절(4)	다함께
기도		박경봉장로
찬양	우리의 어두운 눈이 그를	호산나찬양대
성찬예식		다함께

**주일3부(세대통합)예배 / 오전 10시30분**

인도:조경화목사

찬송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337, 515, 은혜 아니면	다함께
기도		조재일장로
찬양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글로리아찬양대
성찬예식		다함께
파송과위탁		다함께

인도자 :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과 이웃  
을 섬기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회 중 :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일4부(열린)예배 / 오후 12시**

인도:담임목사

경배와찬양	소리엘찬양단
목회기도	인도자
성찬예식	다함께

† 내주기도 : I부 - 이동규 집사 / II부 - 최종일 장로 / III부 - 권오탁 장로  
청년예배 - 나지수 청년 / 찬양 - 이필남 권사 / 수요 - 이명희 권사

† 이달의 강단 꽃장식 : 강은영 도금숙 권수정 장은진 장필모 유미숙 김상용 이지영 염원숙 권정희 배임화

**\* 3월 예배개요인 - 예배 시작 10분 전까지 본당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

구분	안	내	봉 헌	예배중보기도	차량안내		
I	길건성	강성갑	이명의	강은숙	이주일	권향수	정영수 김중관 권대기 권오덕 길건성 박수권 박영재 서재창 성기용 정위동 조대웅 평병탁 사봉권
II	천세동	김태균	이경자	장현숙	손대호	정태순	
III	권오규	강희구	이덕자	김율리	김상용	이금란	
IV	전희봉	김상용	임정숙	권명숙	사봉권	김순화	

**주일5부(청년)예배 / 오후 1시45분**

경배와 찬양 - 하느래워십 / 기도 - 정찬웅청년

설교 - 출애굽기3:1~10(구약P.84) /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라 / 최성수목사

**주일오후찬양예배 / 오후 3시 (남선교회 헌신예배) 인도:박영재집사(3부남선교회회장)**

경배와 찬양 - 새롭찬양단 / 찬송 - 490, 거리마다 기쁨으로 / 기도 - 길건성장로(2부남선교회회장) / 찬양 - 남선교회연합찬양대

성경 - 열왕기상18:1~6(구약P.545)-권영민집사(4부남선교회회장) / 홀로 저 길로 가니라 / 이상관목사(월배교회)

**수요오전예배 / 오전 10시30분**

경배와 찬양 - 예음찬양단 / 은혜나눔 - 동영상

설교 - 역대하35:20~27(구약P.707) / 78.므깃도-전략적 요충지 / 담임목사

**수요저녁예배 / 오후 7시**

인도:조경화목사

찬송 - 370 / 기도 - 최영숙권사

설교 - 창세기1:1(구약P.1) / 구약성경알기(2)-어! 성경이 읽히지네 / 신은희사모

**묵상 노트**

**“여리고 길가의 소리” (마태복음 20:29~34)**

- \_\_\_\_\_을 알리는 소리 (30~31)  
묵상을 위한 질문) 여리고의 어느 길 가에 앉아 있던 두 명의 시각장애인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서 소리를 질렀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가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을 때 그들은 더 큰 소리로 다시 외쳤다. 시각장애인의 큰 외침은 어렵고 힘든 자신의 형편을 알리는 소리였다. 요즘 이런저런 방법으로 주위에 자신의 형편을 알리는 사람이 있는가?
- \_\_\_\_\_을 알리는 소리 (32~34)  
묵상을 위한 질문) 자신의 불쌍한 처지를 외치는 시각장애인의 소리를 들은 예수님은 반응하셨다. 예수님은 가던 걸음을 멈추시고 시각장애인에게 소원이 무엇이라고 물으셨고, 눈을 뜨고 싶다는 그들의 답변에 눈을 떠 보게 하셨다. 시각장애인의 형편을 공감하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앞을 볼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셨다. 예수님처럼 공감하며 도움을 주어야 할 누군가가 있는가?